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19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9, 전례적 접근, 컬투스 슬래시 의식입니다.

우리는 텍사스주 휴스턴 교외인 텍사스주 슈거랜드에 있는 달린 브리지스(Darlene Bridges)의 아름다운 집에 있습니다. 이제 시애틀 교외 사마미시 지역 레드몬드에서 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시편에서 이러한 성찰과 연구를 계속하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트 3페이지에 있는 달력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복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의 계획서의 3페이지를 살펴보고 과정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도는 영감받은 시편 필자, 주로 다윗 자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해석하는 역사적 비평적 방법과 더불어,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교회 역사 내에서 인정받는 다른 방법이나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력 3페이지에서는 강좌 소개 후에 해석의 기술인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편에 대해 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 저자를 이해하려면 그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세계와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와 공유합니다. 우리가 공통된 정신과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시편을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저자 외에도 텍스트가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문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 중 세 번째는 역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저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왕실의 해석이 있습니다. 왕실 찬송가집입니다.

고난과 승리를 이룬 왕의 노래입니다. 왕의 요소는 왕을 언급하는 시편 10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 전체에 스며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접적으로나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각 접근 방식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두 편의 시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시편에 들어가서 그 특정 시편에 대한 접근 방식의 현실성이나 유용성을 봅니다. 역사적 접근의 경우 시편 4편을 살펴보았다. 시편을 살펴보고 형식별로 분류하기 위한 준비로서, 형식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넓은 형식 범주는 서술형과 시형이 아닌 시형이라는 점이다. 산문. 우리는 히브리 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폭넓게 분류한 후, 우리는 시편을 서로 다른 장르로 분류하는 양식 비평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유래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Gattung (독일어), Genre(프랑스어), Form(영어 단어)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의 광범위한 범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넓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칭찬입니다. 그것을 감사찬양이라고 합니다.

즉, 당신은 특정한 필요를 위해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필요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한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은 시편 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과 시편 8편을 보았습니다. 감사의 찬송은 시편 92편을 보았는데 그것이 다윗의 시편 51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큰 범주는 애도시를 다룬 11장과 12장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위기에 처해 있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이 필요로 할 때 찬양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41편처럼 당황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이 당신을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와 욥의 차이점입니다. 욥은 칭찬받지 못한 채 자신의 고난을 불평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여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애도와 불평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애도는 고통을 당할 때, 순수할 때, 아니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부당할 때 당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과분한 고통입니다. 과분한 고난 속에서 당신은 그것에 대한 불평을 듣습니다.

애도는 죄를 고백하는 마땅한 고통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 나올 때 등장한 첫 번째 시편인 시편 3편과 같은 개인의 애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입에 담으신 메시아 시편은 시편 22편입니다. 우리는 공동 애도를 보았습니다. 나는 시편 90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시편 4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애도 시편의 파생물은 신뢰의 노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다양한 장르에는 뚜렷한 모티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나 청원 시편의 모티브 중 하나는 항상, 또는 일반적으로 확신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애통에서 확신을 통해 간구로 나아갑니다. 희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청원을 듣습니다. 이제 전례적 접근이라고 불리는 강의 17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례 시편을 다룰 256페이지에 메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료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 없이는 그것에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기도하오니, 가장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용서를 받고, 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시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전례적 접근 방식은 형식 비판적 접근 방식의 파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식 비평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편이 구성되는 방식, 분위기, 어휘, 찬양의 찬송이나 감사의 노래 또는 애도를 만드는 모티프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별개의 접근 방식으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양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질적으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례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헌에서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컬티스트(cultist), 컬트적 접근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어려운 용어입니다. 일반 영어 사용자에게 컬트란 대다수가 이상하거나 심지어 불길하다고 여기는 종교적 사상이나 관습을 고수하는 소규모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술 문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술 문헌에서 이교도는 종교의 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삶의 환경과 다른 측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교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성한 장소, 신성한 달력, 신성한 인물, 신성한 행동, 신성한 물건 등과 같은 그것의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 해석의 역사에서 이교도에 관한 주요 사상가 중 두 사람은 아이히로트(Eichrodt)와 모윈켈(Mowinckel)입니다. 먼저 Mowinckel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그문트 모윈켈(Sigmund Mowinckel)은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 학자였습니다.

그는 주로 그의 주요 작품 사이에 글을 썼는데, 그의 첫 번째 주요 작품은 19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작이 192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의식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의나 의례는 신과 회중의 만남과 교제가 확립되고, 발전되고,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규제되는 거룩한 행위와 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거룩한 행위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Eichrodt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교도라는 용어는 회중이나 공동체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해설자에 의해 정해진 형식으로 수행되는 종교적 경험과 구체적인 외부 활동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해설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을 것이며 그의 정해진 형식은 시편이나 제사 등과 같을 것입니다.

커트 골드해머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는 그것을 구조화된 경험,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서 서로 합당한 연관성을 갖는 것은 사실의 패턴인 명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종교를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종교에서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내면의 영적 경험과 감정, 감정과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마자 어떤 형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즉,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 회중 예배에 부과되어야 하는 일종의 외적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한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예배에 참석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부 성찬식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찬양의 노래 위에 거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회중 안으로 가져갑니다. 때때로 성서를 들고 회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성경 읽기,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읽기, 성경 설교, 그리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찬식에서는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초대이고, 더욱 전도적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선물을 받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만찬과 그에 수반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모두 이 외부 표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256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생각하고 있는 순전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감정에 반대되는 자료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자발성에 반하여 규제되거나 설정된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덜 형식적으로 즉흥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고,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형식을 통해 더 잘 예배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신약성서의 장점 중 하나가 시작되는 형태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매우 엄격한 형식을 취하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형식이 덜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의 대결은 회중의 대결이고 단순한 데이터와 성찰이라는 관념적 접근방식의 대결은 통합된 구조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257페이지에서 나는 이것을 Bab의 구절을 인용하는 시편에 적용합니다. 이 문헌, 즉 시편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집단과 하나가 되고 집단을 감동시키는 정신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기분이 통회든, 신뢰든, 아니면 기쁜 감사든,

그와 나는 그녀를 잊고 싶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 예배 행위에 아낌없이 참여함으로써 자기 영혼이 갈망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원과 야심 찬 전통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인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헤겔의 용어로 문화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헤겔은 무한한 현실이 있고, 신이 있으며, 그분이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컬투스를 통한 유한함이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 구조를 통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우리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면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면전으로 나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언약의 조항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보았습니다.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편 예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있다고 말합니다. 결정요건이 있습니다.

법은 신조이다. 위협과 약속은 충성을 뒷받침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외적인 표현과 그 안에서 시편의 사용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글쎄, 이제 내가 컬트에 대해 말할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종교에 대한 회중적, 외부적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가 거행되는 곳인 Sitz im Leben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편이 원래 반드시 성전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권을 준비하고 믿음의 삶을 배우고 있던 광야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과 나중에는 압살롬과 대결하면서 시편 3편도 성전을 떠나 작곡되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편 기자는 헤르몬 산 근처 어딘가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과 별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성전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감사의 찬송은 이 성전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성전을 위한 찬양의 찬송이 작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 구성된 사람들조차도 성전을 마음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편 3편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그는 성전 예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은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석 음악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주요 장소는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제가 257페이지에서 다음으로 발전시킨 것은 역사 비평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역사 비평가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상태와 저자에 대한 성경 자체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 첨자 및 내가 생각하기에 역시 포스트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임을 폭로하지만 그것들을 하찮은 일이고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편의 서론을 다룬 훌륭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에 Gunkel은 위 첨자에 대한 작은 장, 아마도 2~3페이지를 추가하여 모든 항목에서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 첨자라는 말은 시편 앞의 첫 줄을 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시 자체 위에 쓰여진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수석 음악가에 대한 추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문 섹션입니다. 불행하게도 영어 성경에서는 이탤릭체로 되어 있어 시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논의할 때 그것이 시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hausen 가설을 받아들이는 문학적 분석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평가를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학계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시편 뒤에 있는 모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진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벨하우젠은 그것이 유배 기간이나 유배 이후 기간에 사제들이 위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모자이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진짜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실제로 천년 후의 것으로 다윗은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응.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모세가 쓴 시편이 아니라 오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교도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자료와 성막의 규정을 생각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음, 궁켈의 경우, 그는 시편과 그 형태 및 모든 것이 첫 번째 성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사원과 이교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시편 자체는 벨하우우스적 배경으로 인해 유배 이후 시대에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이후 자료시대의 시인들을 모방하거나, 성전재료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성전이 아닌 회당을 위한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성전 당시에 기록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가 위 첨자를 없애고 그것이

벨하우즈식 종교의 진화에 적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훨씬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Gunkel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이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시편의 대부분은 민주화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성직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은 단지 컬트의 일반 사람들이며, 포로 이전 시대의 왕과 그의 전투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포로와 포로 이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시편의 군사적 언어는 유배 이후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 속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신병적이며 온 세상을 그들에게 반대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악마가 아니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조금입니다. 따라서 군켈을 위한 시편의 범위는 개인의 글로 구성된 회당에서 나온 것이며 이교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Gunkel의 견해이다.

당신은 학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훈련의 학문적 과정입니다. 학계에 있으면서 군켈과 그의 생각을 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분야의 근본적인 사상가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Mowinckel은 Gunkel의 학생이었고 Mowinckel은 그들이 사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모윈켈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성전 예배 기간, 포로 이전 시대의 시편을 해석합니다.

그는 소위 즉위절을 재구성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듯이 그의 배경에는 모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해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썄요, 그는 이교 문학, 이교 문화를 봅니다.

예를 들어, 바빌론에서는 혼돈을 정복한 신 마르둑이 해마다 즉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 종교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의식과 역사에 대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해마다 재창조하고, 봄을 되찾고, 죽음의

겨울에서 생명을 되살리는 순환이었다. 마르둑은 심연과 혼돈을 정복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창조물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윈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매년 즉위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교사이자 선생님인 Gunkel을 기반으로 자신을 형성합니다.

Gunkel은 Adonai Malach라는 표현이 야훼 또는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매년 즉위식에서 왕으로 즉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시편 5편, 시편 47편, 영어 8절, 히브리어 9절, 시편 93장 1절, 시편 96장 10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97.1과 98.1에서요. 텍스트를 살펴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즉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면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Gunkel과 Mowinckel은 이를 주님이 왕이 되셨다고 번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주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96편과 10절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거나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97.1년에는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다른 노래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를 즉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야훼가 매년 성전 의식을 통해 즉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위시라고 부른다.

나는 여기에서 가을 축제에서 그들이 이것이 가을 갱신, 즉 후기 통치에서 야훼가 왕이 되셨다는 선포와 관련하여 느꼈다는 견해를 썼다. 그리고 그들은 Marduk이 매년 즉위했던 Akitu 축제로 알려진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Gunkel과 Mowinckel이 우가리트어 본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900년, 1925년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가리트어 본문은 1940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가리트 신화에서 이러한 매우 유사한 개념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르둑이 아니라 통치의 신인 바알입니다.

그리고 Marduk이 우가리트 신화에서 혼돈의 여신인 Tiamat를 물리치고 있는 반면, 그것은 생명을 주는 통치의 신인 Baal과 히브리어로 죽음을 의미하는 Mot 또는 바다 또는 Nahar 강을 의미하는 Yam과 대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에서 혼돈의 싸움(chaos kampf)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즉, 창조신과 죽음의 신, 불임, 혼돈에 맞서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의 Gunkel에 따르면 이교도는 세계와 이스라엘의 창조를 재연하고 재실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지만 이것은 거의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관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재제사하는 미사관과 유사하며,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모두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가 말했듯이 궁켈은 자신의 생각을 이 다섯 편의 시편에만 국한시켰습니다. Mowinckel의 경우 거의 전체 시편이 이 의식에 속합니다. 이는 시편을 완전히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는 학계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Mowinckel의 이름을 빼놓고는 학계, 즉 대학의 문헌을 멀리 읽을 수 없습니다. 258페이지에서 그는 시편의 즉위를 더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에 대한 혼돈의 신화의 배경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그것은 이집트 탈출과 홍해 또는 갈대해에서의 승리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창조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와 구원이 모두 컬트 내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위 축제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적들이 그 도시와 백성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쳐부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야훼는 왕으로 대표되며, 왕은 승리의 도시로 들어가는 하나님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말했듯이 여섯 번째에서 이 의식을 통해 여러분이 자연과 역사의 재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예배의 행위와 말을 통해 회중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보여주는 시편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모원켈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행위에 내재된 힘은 단어에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효과적이고 창의적입니다.

또는 이것은 새로운 인용문으로서, 예배를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적 사실이 효과적인 현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편을 문제의 축제와 그 사상 및 제의 형태와 연결하기 전까지는 시편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그 위치, 예배 상황 및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편에 대한 생각 전체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글썄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아마도 교회의 달력처럼 군주제 시대의 가을 축제가 주요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하에서는 가을 축제가 이스라엘 달력의 유월절과 오순절의 주요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설날, 대속죄일 등으로 구성된 가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는 성전 봉헌식은 이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달 곧 칠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로 나아왔으니 곧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더라.

그리고 당신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경쟁 종교를 세웠을 때,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했던 축제와 같이 8월 15일에 축제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북부 지역의 주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로보암의 숭배는 완전히 모세 숭배의 개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성스러운 성지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단과 밧세바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더 이상 법궤나 언약이 아니라 황소 등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 왕의 절기 날에 방백들이 포도주로 들끓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도 우리 왕의 날은 아마도 다윗의 집과 시온을 하나님의 도시로 선택한 것을 기념하는 이 가을 축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 이후로 요시야의 개혁에 관한 열왕기서에 그러한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가리고 가을 축제를 기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 축제가 군주제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요 축제였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는 야훼가 왕이 되셨다고 아도나이 말라흐를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둘 중 하나가 실행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편이 그 혼돈에 비추어 쓰여진 세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이 아닌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위해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화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창조의 신이라는 주인공이 있다.

적대자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를 제한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 하나님은 적대적이고 제지하는 하나님을 이기시고, 그 후에 그는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시고 그들은 그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또는 그분이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전을 기념합니다.

이제 시편 93편을 보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시편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분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견고하고 견고하며 안전합니다.

당신의 왕좌는 오래 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보좌는 영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바다가 솟아올랐습니다.

바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다가 그 요동치는 파도를 일으켰으니 이는 큰 물의 천둥소리보다 위대하고 바다를 가르며 가는 자보다 위대하였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조각상들은 굳게 서 있습니다. 거룩함은 끝없는 날 동안 당신의 집을 장식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나에게 이러한 배경을 두고 그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진함을 갖고 다시 그 순진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의 옷을 입으신 것에 대한 이중의 은유는 이중의 모습인데, 이는 그분이 옷을 입으신 것에 대한 은유를 의미합니다.

위엄은 말하자면 혼돈에 대한 창조에서 그가 승리함으로써 얻은 위엄을 환유한 것입니다. 그분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견고하고 견고하며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통치하지만 매년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의 왕좌는 오래 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보좌는 영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는 연례 재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거기 계셨고, 어둠 위에 빛을 창조하셨을 때, 예를 들어 바다 위에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적은 바다로 대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바다는 구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바다 풍경의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좋은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주님을 높였습니다. 바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다가 두근거리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악을 대표하지만 물의 천둥보다 강하고 바다를 가르며 흐르는 자보다 강하며 높이 계신 여호와와 강하시도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히 지속될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특징은 거룩함과 그분의 언약의 율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굳게 세우소서 거룩함은 끝없는 날 동안 당신의 집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화적 이미지가 우리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존 레빈슨(John Levinson)은 그의 아주 훌륭한 책인 시내산과 시온(Sinai and Zion)에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나는 너무 극단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93편과 다른 시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문제는 축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교 종교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비평의 본질적인 이단성에 참여한다. 둘째, 축제의 모든 재구성은 가설이며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양한 견해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Gunkel 자신은 Mowinckel의 대규모 재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순수한 상상이라고 말한다.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다섯 명으로만 몸을 팔지만, 이 다섯 명을 위한 축제 내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거부됩니다.

이러한 즉위 시편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전체 재구성은 대부분 거부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원켈의 즉위시편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시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Weiser에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Weiser는 구약성서 도서관 시리즈의 훌륭한 책에서 가을 축제를 봅니다. 내 생각에 그의 논평은 최고의 논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이 모두 가을 축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편은 모두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축제에 반대하여 모든 시편을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서, 시편의 분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시편의 단순한 의미는 우리가 위 침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편 14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많은 시편이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군켈의 반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개인 기도를 드리는 대신, 개인 기도로 시작하여 성전 예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어떤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떠나 지은 것이지만 다른 시편은 성전을 위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지혜 시편인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은 정확히 어떻게 성전 예배에 들어맞았나요? 아니면 딱 들어맞았나요? 아마도 그것은 단지 회당과 명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시편은 어떻게, 예를 들어 신정론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시편 49편의 삶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히 그것이 성전 생활에 어떻게 들어맞았나요? 그게 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내 생각엔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컬트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나는 그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시편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 전례와 예배에 반대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시편의 용도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259페이지에 나오는 기호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성찬적으로 기능합니다. 넷째, 나치의 거짓 선전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관점을 옹호하는 예술적 선전으로 기능한다.

우선 상징적이다. 그것은 종교의 살아있는 것들을 심오하게 묘사하는 가시적인 형태이다. 즉, 당신은 종교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외적 행위에서 내면의 영적 현실로부터 외적인 행위와 하나님께 드리는 바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개인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미스터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벽에는 종려나무와 각종 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동산과 영생을 상징했습니다. 지성소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모든 문이 점점 좁아 지고, 정문과 현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붕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언약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금으로 덮여 있지만 이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교도 종교에서는 자연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나 달의 동상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조작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덕적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였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덕적 의지입니다. 그것은 윤리입니다.

그 다음 십계명은 언약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를 하고, 죄악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피가 있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함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스팅크스 같은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룹들이 에덴동산을 보호한 것처럼 죄가 그 동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신성함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어둠을 꿰뚫는 빛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상징주의 신학을 통한 상징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시편 73편을 생각한다.

시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읽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보세요, 성소에 있어요.

나는 그가 자신의 신앙의 위기가 해결되었다는 상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인데, 흔히 지혜의 시편으로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즉시 자신의 믿음을 확언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느니라.

그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불평이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그의 근본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이 그의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가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 마음과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발판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행동을 생각하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였음으로다. 그들은 투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질병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목걸이입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냉담한 마음에서 죄악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악한 상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웃고 악의를 가지고 오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억압을 위협합니다.

그들의 입은 천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은 그들에게로 돌아와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아십니까?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며 항상 염려하며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지킨 것이 헛되도다.

나는 결백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괴로움을 당했고 아침마다 새로운 징벌이 닥쳤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였더라면 나는 너희 자녀들을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심히 고민하였느니라. 그때 나는 그들의 최종 운명을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것들을 미끄러운 땅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멸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갑자기 멸망하고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갔습니까? 깨어 나면 꿈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일어나실 때, 당신은 그것들을 환상으로 멸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영이 슬펐을 때 나는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잔인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언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를 영광 안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는 나에게 누구도 없느뇨 너희와 땅에는 너희 밖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당신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충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주권자이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9, 전례적 접근, 컬투스 슬래시 의식입니다.